

이름: 최다미

이메일:

나이: 17

직업: 학생

거주지역: 경기도

안양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 체크해 주세요): ☐ 2013 ☐ 2014 ☒ 처음 참여

연속되는 긴장되는 날.

일요일부터 자음까지 난 긴장을 하며 지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내일이 '한중 청소년 교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한중 청소년 교류는 내가 정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이다. 자기소개서도 쓰고, 활동 계획서도 써서. 1차인 서류면접은 통과를 하였다. 그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차 최종면접을 보러갔는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그 정도로 긴장을 하며 약 20분간 면접을 보았다. 기쁜 마음으로 보면 자기소개와 참가동기, 중재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국 역사·인물·정치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키워드 제시하기 등을 물어보시면서 내가 답한 것에 대한 질문도 하시곤 했다.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일요일 날 면접을 보고 난 배일 면접을 보는 꿈과 합격자 발표가 나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아침 내내 앓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합격에 대한 압박을 받았나보다.

그래도 내일이면 드디어 발표가 난다. 물론 내가 합격에 대한 기대가 커서 불합격이면 실망이 크겠지만 때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 밤에는 연애편지처럼 꿈을 꾸었지만 내가 합격하는 꿈을 꾸어서 내일 내가 정말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일이면 이 긴장도 끝일 것이다...ㅎ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